

# 64년 만의 아시안컵, FIFA 랭킹 87위에 패배하며 허무하게 놓쳤다

7일 요르단과의 아시안컵 준결승서 패배  
손흥민·이강인 등 황금세대 보유하고도  
전력상 약체로 평가받는 팀에 저 좌절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 출신 공격수 손흥민(토트넘)과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을 대표하는 젊은 선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있어도 아시안컵에 끝내 닿지 못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3위인 한국 축구 대표팀은 87위 요르단에 발목잡히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탈락했다.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7일 0시(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안 야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요르단과의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0-2로 패배했다.

힘들게 4강까지 오른 과정이 무색할 만큼 허무하게 지면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클린스만호는 이번 대회를 통해 지난 1960년 제2회 대회 우승 이후 64년 만의 우승을 노렸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황희찬(울버햄튼), 황인범(츠베즈다) 등 세계적인 선수들에, 설영우, 김영권, 조현우(이상 울산 HD), 박진섭, 김태환, 김진수(이상 전북현대) 등 아시아 최고 수준의 프로축구 K리그 주축 선수들도 보유해 목표를 달성할 적기란 평가가 따랐다.

조별리그부터 불안함을 노출했다. 지난달 15일 바레인과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3-1로 승리했으나 내용은 좋지 않았다. 전력상 한국이 압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선수 개인 능력으로 승점 3을 획득했다.

이후 요르단전(2-2 무), 말레이시아전(3-3 무) 전부 내용, 결과 다 잡지 못했다. 토너먼트에 진출한 후에도 크게 달리지 않았다. 16강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는 0-1로 끌려가다 경기 종료 직전에 나온 조규

성(미트윌란)의 득점으로 경기를 연장전까지 끌고 갔다. 이어진 승부차기에서도 조현우(울산 HD)의 선방으로 승부차기 4-2 승리를 거둬 8강에 올랐다.

8강 호주전도 여전했다. 또 0-1로 끌려가다 후반 51분 황희찬의 페널티킥으로 동점을 만들었고, 연장 전반 14분에 나온 손흥민의 프리킥 결승골로 4강에 올랐다. 지난 5경기 모두 전략, 전술의 세밀함보다는 선수들의 개인 능력으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질 듯 지지 않으면서 '좀비 축구'라는 별명이 붙었으나, 4강에선 통하지 않았다.

이미 한 차례 조별리그에서 만나, 클린스만호의 약점을 파악한 요르단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요르단 공격진의 수준이 조금 더 높았다면 보다 큰 점수 차로 패배를 가능성이 컸다.

김민재가 경고 누적 징계로 이날 결장했다는 핑계도 통하지 않을 만큼 수비 라인은 조직력이 떨어졌다.

요르단은 사상 첫 결승에 오를 만큼 능력을 보여줬지만, 객관적 전력상 한국보다 강한 팀은 아니다. 개개인의 수준을 놓고 보면 한국이 월등히 앞선다.

그러나 감독이 채울 수 있는 전략, 전술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6일(현지시간) 카타르 알라이안 야흐메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 요르단 대 대한민국의 경기 시작 전 팀포트를 찍고 있다.

밀렸다. 많은 출전 시간으로 지친 선수단에 대한 로테이션도 없고,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는 세밀함도 떨어졌다.

황금세대로서, 64년 동안 거머쥐지 못했던 아시안컵에 닿는 듯했던 한국 축구는 두 걸음 을 더 내딛지 못하고 카타르를 떠나게 됐다.

## 클린스만 용병술도 물음표...안 아픈 김진수는 벤치만

손흥민·이강인·설영우 '600분' 혹사...이순민 등 5명 '0분'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 도전에 실패한 한국 축구대표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선수단 운영이 비판을 받는다.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한 한국 대표팀은 7일(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안 야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요르단에 0-2로 져 탈락했다.

역대 최강 전력이란 평가에도 클린스만호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87위인 요르단에 허무하게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요르단에 3승3무로 진 적이 없었기에 충격은 더 컸다.

요르단전 출전에도 무색무취 전술로 일관했던 클린스만 감독의 용병술도 비판을 받는다.

한국은 조별리그부터 거의 매 경기 주전급 선수의 변화 없이 4강전까지 치렀다. 16강이 조기 확정된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FIFA 랭킹 130위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생제르맹),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등 사실상 베스트11을 가동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를 상대로도 3-3으로 겨우 비기면서 선수단 체력 안배에 실패했고, 토너먼트 16강과 8강전을 연달아 연장 승부까지 펼쳐 선수들의 체력은 바닥났다.

실제로 손흥민과 이강인은 정규시간만 540분을 소화했고, 추가시간과 연장전을 포함해 600분 가까이 그라운드를 달렸다.

측면 수비수 설영우(울산)도 비슷한 시간을 뛰었다.

이들이 팀 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조별리그에서 로테이션을 통한 체력 안배를 왜 안 했는지 의문이 드는 이유다.

클린스만호는 총 26명의 최종 엔트리 중 4강전까지 못 뛰 선수가 무려 5명이 된다.

문선민(전북), 이순민(대전), 김주성(서울), 김지수(브렌트포드), 송병근(쇼난벨마레)은 이번 대회 내내 동료들이 뛰는 모습만 지켜봤다.

공격수 문선민은 대회 기간 부상으로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다고 하나, 지난 시즌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 돌풍의 주역이었던 미드필더 이순민을 끝까지 활용하지 않은 건 아쉽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순민을 외면하고 조별리그부터 잦은 실수를 비판 받았던 박용우(알아인)를 요르단과 4강전에 또 기용했다.

이순민을 조별리그부터 적절하게 교체로 활용했다면 황인범(츠베즈다)에게 과부하도 걸리지 않을 수 있었다.

센터백 김주성, 김지수도 마찬가지다. 클린스만 감독은 후방 수비가 필요할 때 이들 대신 미드필더와 수비가 모두 가능한 멀티 자원 박진섭(전북)을 기용했다.

애초에 이렇 계획이었다면, 이들 대신 공격이나 미드필더 옵션을 더 추가하는 게 나았다.

대회 전 부상으로 초반에 결장하다 말레이



시아와 조별리그 최종전에 후반 30분 교체로 처음 투입됐던 김진수를 토너먼트 돌입 후 쓰지 않은 선택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설영우가 왼쪽에서 제 몫을 해줬지만, 체력적으로 후반에 지친 데다 반대쪽의 김태환(전북)이 다소 부진해 설영우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김진수를 투입하는 것도 전술적인 대안 이 될 수 있었다.

A매치 70경기를 뒀 김진수는 경험이 풍부한 측면 수비수다. 하지만 16강전과 8강전, 4강전까지 모두 벤치만 지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김진수의 부상이 또 재발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김진수는 요르단이 끝난 뒤 '말레이시아' 이후 단 한 번도 아팠던 적이 없다. 많은 분이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 아프냐고 묻는 연락이 많이 왔다"며 "몸 상태가 나쁘고 그랬던 건 아니다. 하지만 내가 뛰었다고 경기가 달라질 거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클린스만 감독을 향한 비판 여론에 불을 지폈다.

## 충격 탈락에 팬들도 분노...“클린스만 아웃”

“유효슈팅 0개”로 탈락하고 실실 웃는 감독 처음 봤다” 비난

64년 만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우승 도전에 실패한 한국 축구대표팀의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을 향한 팬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한 한국 축구대표팀은 7일(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안 야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요르단에 0-2로 완패해 탈락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87위 요르단을 상대로 한국(23위)의 승리가 예상됐으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한국은 요르단을 상대로 단 한 개의 유효슈팅도 기록하지 못한 채 무너졌다.

준결승전을 앞두고 축구통계전문매체 옵타는 한국의 결승행 확률을 70%에 가깝게 내다봤지만, 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무색무취 전술로 선수 능력에 의존해 온 클린스만 감독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다.

대한축구협회가 요르단전 0-2 패배 결과를 게시글로 올리자 약 1만8000여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렸다.

최선을 다한 선수들을 응원한 글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클린스만 감독을 향한 악성 댓글이었다.

한 팬은 “클린스만 감독이 뭘 보여주려는지 모르겠다. 전술이 없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없을 줄은 몰랐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클린스만 감독을 자르고, 대한축구협회도 다 갈아엎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팬은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에 돌아오면 자리가 없다. 새 감독을 데려와야 한다. 그를 선택했던 협회에 의문이 든다. 왜 클린스만을 선택했나”라고 했다.

요르단전 패배 후 실망한 선수들과 달리 특유의 미소로 상대 감독에 덕담하는 클린스만 감독을 향해서는 “유효슈팅 0개로 처참하게 탈락하고, 실실 웃는 감독은 처음 봤다”고 분노했다.

외신들도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생제르맹),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등 유럽 빅리거를 보유하고도 요르단에 패배 탈락한 클린스만 감독의 향후 거취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정작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후 잔류 의사를 내비쳤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 대회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다. 많은 걸 느낀 대회다”며 “지금 당장 해야 할 한국으로 돌아가서 대회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더 보완해야 한다. 어쨌든 다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후 보인 웃음에는 “상대 팀을 축하해주고 존중할 것”이라며 “웃으며 축하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관점이 다를 수 있다. 그저 상대가 더 잘했어 축하해주는 것도 지도자로서 패배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의미로 약속하고 인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